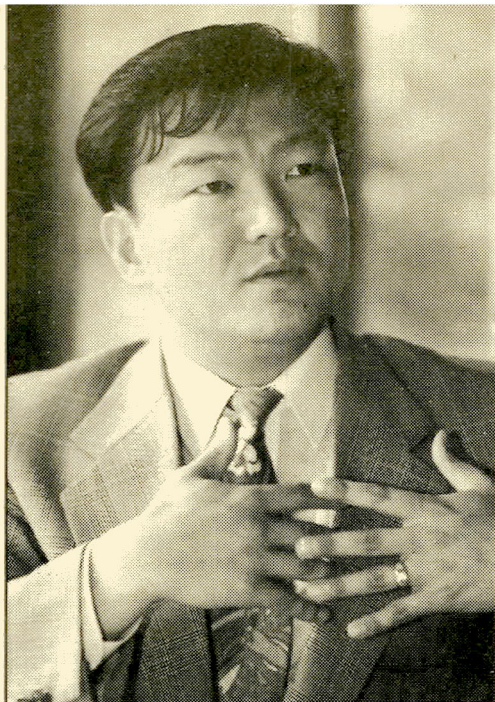




운전학원 강사의 성추행 취재, 이달의 기자로 선정

“여성들에게 용기 준 것이 보람”

“성희롱이 사회문제로 부상한 이후 과연 그렇게 심할까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는데 막상 취재현장에서 실태를 보고나니 벌어진 일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한국기자협회가 이달의 기자로 선정한 한국방송공사 기동취재부의 민경욱 기자(32). 그는 운전학원 강사의 교습생 추행을 취재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바쳤다.

민 기자의 개가는 소문으로

“맨 처음 자신을 이십대 후반의 주부라고 소개하는 여자가 제보전화를 해왔을 때 솔직히 약간의 의구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쳇말로 정을 통해놓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방송을 이용해 앙갚음하려는 것은 아닌가,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신체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특정학원의 특정 강사에 해당되는 일이 아닐까, 등등의 생각으로 조금

망설였죠.”

이런 의아심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 나가보는 수밖에 없었다. 민 기자는 즉시 목동 아파트촌의 일방 통행로에서 시내 연수를 하고 있는 서울 시내 각 운전학원의 운전연습용 차량들을 살펴보러 나갔다.

이곳에서 민 기자는 운전학원 강사가 여성들의 허벅지와 국부를 만지는 행태를 직접 목격했다. “전국에 걸쳐 운전면허를 가진 여성이 2백50만 명입니다. 이들은 물론 운전학원을 통해 면허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피해를 당한 여성이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현장을 보고 나니 생기더군요.”

이때부터 그의 운전학원 출

근이 시작됐다. 문제는 어떻게 ‘그림’을 확보하느냐에 있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카메라로 찍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강사와 교습생만이 있는 좁은 자동차 안을 카메라에 담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눈으로 확인한 이상 힘들다고 해서 그냥 덮어버릴 수는 없었죠. 운전면허를 딸 여성들이 꾸준히 증가할 생각을 하니깐 빨리 뿌리뽑지 않으면 안되겠더라고요. 지금이야 추행이지만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강간으로 ‘발전’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운전학원 근처 가정집의 양해를 구해 목욕탕 창문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근접 촬영

에 들어갔다. 그러나 좁은 차내에서 벌어지는 현장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때 생각해 낸 것이 일제 소니 8밀리 비디오 카메라였다. 초점과 조리개가 자동이라 화면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춰져 있는 카메라를 소품실 직원들의 도움을 얻어 여자용 핸드백에 장치할 수 있었다. 이 장치로 강사가 교습생을 추행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담을 수 있었다.

“2,3백 컷 중 겨우 서너 컷에 달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꼬박 3주일을 매달린 거죠.” 이 방송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2명의 강사가 구속됐고 운전학원에 성폭력신고센터가 개설됐으며 운전학원 강

사들의 자정결의대회도 열렸다.

“이런 보람 때문에 기자직에 목숨거는 것 아니겠느냐?”며 웃는 그는 “이제는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의 리포트가 그런 움직임에 박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문제가 있는 곳은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겠다는 민 기자는 “하지만 나는 아직은 페미니스트 대열에 끼일 자격이 없다”며 쑥스러워했다. 산부인과 레지던트 4년 차인 아내의 가사를 ‘일’ 핑계 대고 전혀 도와주지 못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김명순 기자〉